

후원자를 만나 재능을
꽃피웠던 화가
『프랑수아 부세』



박 회 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가족 외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후원자는 평범한 인생을 꽃피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후원이야말로 예술가에게 혼을 불태울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후원자를 만나 예술을 꽃피웠던 대표적인 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세다. 부세는 18세기 루이 15세의 정부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풍파두르 후작부인의 후원 덕분에 회화는 물론 실내 장식, 태피스트리, 도자기, 판화, 가구 디자인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펼쳤다.

풍파두르 후작부인은 루이 15세의 정부로 로코코 시대에 문화를 이끌었던 엘리트였다. 예술의 보호와 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녀는 루소 등 철학자들과의 원활하게 교류도 하면서 백과사전 출판에 관여했을 정도로 출판에 관심이 많았으며 경직된 왕실의 분위기를 바꿔 보고자 연극, 음악, 미술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우렸다. 풍파두르 후작부인의 문화적 관심 덕분에 로코코 문화가 발전하기에 이른다.

부세가 풍파두르 후작부인을 그린 대표적인 초상화가 <풍파두르 후작부인>다. 이 작품은 풍파두르 후작부인의 초상화 연작 중에 하나로서 후작부인을 우아하게 표현했다.

장미가 화려한 수놓은 파티 드레스를 입고 안락의자에 있는 풍파두르 후작

부인 뒤로 커다란 거울이 있다. 장미꽃과 잎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울의 테두리는 로코코 양식으로 후작부인의 고급스러운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녀는 당시 사치스럽기로 유명했다.

거울에는 시계와 도자기 장식이 놓여 있는 책장을 보인다. 책장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어 책을 읽는 것을 즐겨했던 후작부인의 취향이 보인다. 풍과두르 후작부인은 자신의 서가에 3500여권에 이르는 장서를 꽂아 두었다.

탁자에는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게 깃털 펜이 놓여 있고 그리고 발밑에는 두루마리 악보가 있다. 후작부인은 루이 15세를 위해 연극이나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노래를 불렀었다.

후작부인이 편안하게 실내화를 신고 있는 것은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부간의 충절을 상징하는 개는 루이 15세와 그녀와의 관계를 암시한다.



<풍과두르 후작부인>--1756년, 캔버스에 유채, 201*157, 뮌헨 알테 피나코텍 소장

부세는 이 작품에서 후작부인의 외모보다는 책과 악보 등 그녀의 지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만 손끝은 책장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가 남긴 12점이 초상화 중 7점이 풍과두르 후작부인 초상화이지만 그녀는 초상화를 보고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 작품은 풍과두르 후작부인의 개인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녀는 궁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뢰했다.

후작부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부세는 곧

궁정화가와 왕립 미술아카데미의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된다.

부세의 작품 중 관능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목욕하는 디아나>다.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디아나는 용맹과 결단력, 통솔력을 지닌 여신으로 남성들을 불신했다. 제우스는 요정들에게 항상 순결을 강조한 디아나 여신을 섬기는 요정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칼리스토에 반한다. 제우스는 칼리스토에게 접근하기 위해 디아나 여신으로 변신을 한다는 내용이다.

숲 속 호수 옆에 두 마리에 사냥개와 칼, 화살 통이 놓여 있고 화면 오른쪽에는 사냥에서 얻은 동물들이 보인다. 칼과 화살 통은 제우스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로서 이 작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인이 디아나로 변신한 제우스라는 것을 암시한다.

칼리토스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디아나로 변신한 제우스는 왼쪽 다리로 칼리토스의 무릎을 애무하고 있다. 디아나가 손에 들고 있는 목걸이는 칼리토스의 것으로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강조했다.

프랑수아즈 부세<1703~1770>는 철학적 깊이나 도덕적 교훈보다는 무절제한 프랑스 궁정생활을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욕하는 디아나>--1742년, 캔버스에 유채, 56*73,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